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신현빈 X 문상민, 이별 조건 담긴 스페셜 포스터 공개!

2024. 8. 27.



사진제공=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1, 2회가 베일을 벗으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설레는 핑크빛으로 물들인 가운데, 신현빈과 문상민의 이별 조건의 데이트를 그린 스페셜 포스터가 공개됐다.

지난 24일 첫 공개된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연출: 서민정, 배희영 | 극본: 오은지 | 크리에이터: 박준화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이미지너스, 스튜디오알파) 1, 2회에서는 헤어짐을 대가로 입금을 받은 '윤서'(신현빈)와 이별 통보를 받고 팀 막

내 사원에서 본부장으로 돌아온 '주원'(문상민)의 흥미진진한 밀당이 전개됐다.

이별부터 시작하는 윤서와 주원의 이야기, 그리고 완벽한 이별을 위한 27번의 데이트 약속 등의 설정은 로코팬들에게 신선함을 안겼다. 동화같은 신데렐라가 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별을 택한 여주인공 신현빈과 더욱 완벽해진 모습으로 그녀에게 매달리는 로맨티스트 문상민의 찰떡 케미는 설렘을 한껏 자극했다.

시청자들은 “분명 아는 맛인데, 뒤에서 치는 독특한 맛이 엄청 달콤하다”, “저렇게 완벽한 남자친구가 들이대는데 어떻게 헤어지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여주는 멋지고 남주는 설레네. 나 로코 좋아하네”, “오랜만에 주말에 설렘다. 화면 속 커플을 보고 피식피식 웃는 나를 발견했다. 이게 진짜 로코지”, “이별하고 다시 씬을 탄다니! 흥미진진하다”, “2회만에 이별을 반대하게 됐다”는 등의 댓글로 열띤 반응을 드러냈다.

시청자 반응에 화답하듯 공개된 스페셜 포스터는 헤어짐을 전제로 한 윤서와 주원간의 데이트 약속을 그리고 있다. 사내에서 비밀 연애중이었던 윤서는 회사 대주주의 막내아들인 남자친구 주원의 어머니가 이별을 종용하자 쿨하게 계좌번호를 적고 두 달 안에 헤어지겠다 단언한다. 그러나 그녀와 결코 헤어질 생각이 없는 주원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윤서가 자신에게 밥을 얻어먹은 횡수 - 27번 만큼 윤서가 밥을 사서 갚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 공개된 포스터의 “나랑 두 달만 밥 먹자. 그럼 헤어져 줄게.”라는 문구에는 이러한 주원의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는 바, 과연 27번의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이 정말 이별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완벽한 재벌남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극 현실주의 능력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는 매주 토, 일 밤 9시에 공개된다. 쿠팡플레이 공개 이후 9시 20분부터 채널A에서 방송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